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84호 1판 (음력 6월 21일)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구직자 "대부분 생산직 … 임금 너무 박해요"
업체들 "자격증 없고 목표의식 안보이네요"

광주, 전남·북 채용박람회 가보니

200여 업체에 7천명 몰렸지만 눈높이 격차에 '미스매치' 여전

"마음에 드는 서비스업종은 찾기 힘들고, 생산직이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생산직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이력서를 내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취업준비생 박모씨)

"전문직이다 보니 자격증을 가진 구직자가 필요한데, 이력서를 제출한 10여 명 가운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명도 없어요. 구직 준비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A건설사 관계자)

16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광주전남북 채용박람회' 행사장. 오전 9시를 넘기면서부터 취업준비생과 졸업을 앞둔 고교생, 이직을 노리는 직장인,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층이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개막행사가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구직자들은 현장부스를 돌고, 업체 게시판을 지켜보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날 하루 방문한 구직자만 7000여 명.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시, 광주·전남교육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채용박람회는 62개 지역업체가 부스를 설치해 현장면접을 하는 등 200여 기업체가 참여한 하반기 최대의 채용행사로 치러졌다.

청년층 채용난이 심각한 만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장 곳곳에서 구직자와 구인 회사의 눈높이 격차에 따른 '미스매치 현상'은 여전했다.

16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광주전남북 채용박람회' 행사장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참여업체의 부스를 돌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구직자는 7000명에 이르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참여 업체 대부분이 제조업인 탓에 생산직 사원 채용이 주로 이뤄졌는데, 구직자들은 연봉 수준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대졸 취업준비생인 최모(26)씨는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생산직이라도 구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었는데, 제시된 월급을 보고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상당수 업체들은 생산직 사원 월급을 최저임금(시급 5210원)으로 표기했다.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도 찾기 힘들었다. 행사장을 찾은 장년층은 쉽게 면접자리에 앉지 못했다.

동갑내기 친구 3명과 현장을 찾은 김모(60)씨는 "업체는 많은 데 60대를 위한 일자리는 거의 없었다"며 "노동강도가 약한 서비스직이나 경비직을 알아보려 했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장에 부스를 차린 업체 관계자들은 구직자들의 '성의없는 자세'가 불만이었다.

A업체 관계자는 "취업이 절실하다는 의지는 보이는데, 이력서를 낸 회사를 잘 알지도 못한데다 목표의식이 보이지 않았다"며 "채용행사를 가면 '내 일자리 하나는 있지 않을까' 해서 방문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꾸준히 4~5명씩 대기인원이 밀리는 인기 업체는 대기업 못지 않은 연봉을 제시한 기업이거나, 서비스 업종이었다. 대졸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데 연봉 3500만원을 제시한 ㈜세화IMC의 경우 면접자의 줄이 이어졌고, 행사직원 채용에 나선 ㈜광주신세계와 라마다플라자광주는 젊은 여성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KIA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생산하는 ㈜비젼코리아는 고교생의 문의가 계속됐다. 시민석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올 가을에도 전남·북 5개 지역(목포, 여수, 전주, 익산, 군산)에서 채용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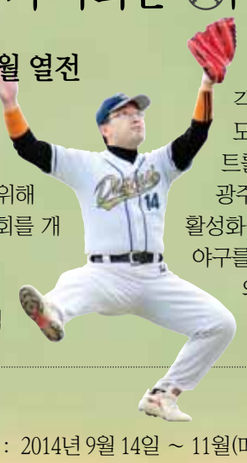
제4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9월 14일 개막…2개월 열전
32개팀 선착순 모집

광주일보사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인 야구 활성화를 위해 제4회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대회는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 리그로부터 경기력 기준으로 2개 그룹 각 16개팀을 추천받아 모두 32개팀이 토너먼트를 벌이게 됩니다.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대회에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회기간 : 2014년 9월 14일 ~ 11월(매주 토, 일요일)
■대회장소 : 광주·전남 지역 지정구장
■경기방식 : 무등·광일 토너먼트
■시 상 : 각 토너먼트 우승, 준우승, 공동3위, 감독상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등
■자료확인 : 광주일보 홈페이지 참조
■참가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062-220-0541)

光州日報社

갯벌, 전남이 전체 면적의 42%

전국에 2487.2㎢ 규모 … '제주도의 1.35배'

갯벌 감소폭은 크게 완화

■전국 갯벌 분포현황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2,487.2㎢	100%	서해안 : 2,084.5㎢ 남해안 : 402.7㎢
전라남도	1,044.4㎢	42%	
전라북도	118.2㎢	4.8%	
인천·경기	875.5㎢	35.2%	
충청남도	357.0㎢	14.3%	
경남·부산	92.1㎢	3.7%	

〈자료 : 해양수산부〉

전국의 갯벌규모가 작년말 현재 2487.2㎢로 제주도의 1.35배, 여의도의 858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갯벌면적은 전남이 전체의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16일 "2013년 전국 갯벌면적을 조사한 결과, 5년 전인 2008년 조사 때보다 2.2㎢(여의도 면적 0.76배, 0.09%)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 갯벌면적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2008년 갯벌면적이 5년전보다 60.8㎢(여의도 면적 21배,2.4%)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또 전체 갯벌면적 중 서해안이 83.8%인 2084.5㎢, 남해안이 16.2%인 402.7㎢를 각각 차지했고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 42.0%, 인천·경기 35.2%, 충남 14.3%, 전북 4.8%, 경남·부산 3.7%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개발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해왔던 대규모 매립·간척이 크게 줄어든데다 2008년 람사르 총회 개최, 2001년부터 습지보호지역 12개소 지정 등 갯벌보호 정책을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나온 갯벌면적 통계자료는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와 갯벌정보시스템(www.tidalflat.go.kr)에서 볼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7·30 재보선 누가 뛰나
–담양·함평·영광·장성▶3면
민선6기 단체장에 듣는다
– 김성 장흥군수 ▶11면

홍콩 야경에 빠지다 ▶18면

추가 폭로 소문에?…정성근 후보 사퇴

박근혜 2기 내각 출발부터 차질

위증과 폭탄주 논란 등으로 자질 논란을 빚은 정성근(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로써 야당이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했던 김명수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자, 정성근 후보자 2명이 모두 낙마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직을 사퇴한다"며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논란에 휘말리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뒤 야당의 낙마 표적이 돼왔으나 박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가 이날 돌연 사퇴한 것은 결국 잦아들지 않는 부정적 여론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정 후보자에 관한 추가 폭로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도 정 후보자에게 부담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은 출발부터 차질을 빚게 됐고 청와대의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고조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독거노인 무료개안 수술을 위한 자전거 투어
8월 4일(월)~5일(화) 062)605-1128
광신대학교